

서진건설 소송 제기...어등산관광단지 '먹구름'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해 달라” 시 상대 행정소송 광주시 10년 넘도록 골프장 외 진척 없는데 법정공방까지

광주시 역점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또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모습이다.

민간사업제한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난해 말 지위를 박탈당한 (주)서진건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사업 만료일을 2024년 12월로 5년 연기하는 등 사업 재추진 의지를 보였으나 법정 공방으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힐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진건설은 지난 15일 광주지법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광주시가 내

린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은행에 예치한 48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23일 서진건설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자 선정 행위를 취소했다. 같은 날 서진건설 측은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사실과 함께 사업이행 담보 보증금(액면가 48억원 당좌수표) 몰수 방침 사실을 통지한 바 있다. 앞서 이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는 협상 최종 시한인 지난해 20일까지 서진건설 측이 이렇다할 설명도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으며 협상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서진건설은 지난해 7월 23일 어등산 관

광단지 조성 사업 3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10여년 넘게 표류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 했으나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과 사업 내용 등을 둘러싸고 광주시·광주도시공사와 서진건설 측은 수차례 입장차를 보였다. 애초 우선협상자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 협약(본계약)을 체결하도록 공모 지침에서 규정했으나 연말까지 협상 기간이 늦춰졌고 막판에 협상이 깨진 것이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광주도시공사와 협상에서 의견을 좁히면 광주시청이 틀어버리는 등 협상이 순탄치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우선협상자 자격을 되살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잘해보고 싶기 때문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처럼 광주시가 전면에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 측 소장을 검토 중이다. 우선협상자 자격 박탈 등 광주시

행정 행위 반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다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진건설이 우선협상자 자격 보유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업 추진 방식을 민간사업으로 택할 경우 선뜻 공모에 참여할 민간 업체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외에는 그동안 진척이 없다. 광주시는 어등산에 특급호텔과 상업시설을 포함한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흠집난 장성 사과 팝니다

지난해 태풍·우박 피해 사과 롯데슈퍼450개 매장서 판매

전남도와 롯데슈퍼는 지난해 태풍과 우박 피해를 입은 장성 흠집 사과를 전국 롯데슈퍼 매장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29일부터 롯데슈퍼 전국 450여 개 매장에서 장성 흠집 사과 180t에 대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판매한 흠집 사과는 사과 껍질이 살짝 긁힌 상처가 있지만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아 소비자 들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장성 사과의 브랜드 홍보 및 전국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장성 사과를 롯데슈퍼에 지속적으로 입점해 판매할 계획이다.

장성사과는 우리나라 사과 재배지 최남단에서 생산된 고품질 사과로 타 지역

보다 출하시기는 늦지만, 가을 서리를 맞아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식감이 뛰어나다.

특히 161개 사과 재배 농가와 삼계농협 등 6개 농협이 공선출하회를 조직해 사과 생산부터 수확, 상품화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강호진 롯데슈퍼 신선식품부장은 “일교차가 크고 별이 좋은 장성의 사과는 맛이 뛰어나지만 전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사과 농가 돕기 행사를 계기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여 가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호진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1년 동안 힘들게 농사 지은 사과가 수확기 기상악화로 상품성이 떨어져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장성 사과 팔아주기 행사가 어려운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판로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촌주택개량사업

전남도 1467동 '최다'

전남도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1467동의 물량을 확보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7937동을 대상으로 했다.



여수 신기항, 완도 당인항, 고흥 지죽항, 장흥 우산항, 무안 홀통항 등 5개 소규모 항포구가 최근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사진은 완도 당인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용자지원은 농협에서 주택건축비 범위에서 대출 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연면적 150㎡ 이내 신축·개축·재축 등은 1년 거치 19년(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자진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를 포함한 노후·불량 주택 개량자, 귀농·귀촌자 순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금(중도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대주만 가능했던 사업신청범위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전통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철저한 추진 상황 관리, 농촌주거환경개선 의지를 평가받아 많은 물량 확보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소규모 항포구 5곳 지방어항 신규 지정

795억 투입 어항 현대화 기대

전남도는 28일 “여수 신기항, 고흥 지죽항, 장흥 우산항, 무안 홀통항, 완도 당인항 등 5개 소규모 항포구를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어항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지방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어항의 이용실태, 어선의 안전 수용률, 어항지정 기준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최근 해양수산부, 환

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방어항으로의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이들 어항은 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기반시설 투자가 미흡해 어업활동에 불편을 겪었으나, 전남도가 직접 앞으로 대규모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항 현대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규로 지정된 지방어항에 대해 어선 정박 등 전통적인 수산업 지원 기능과 함께 어항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 해양관광·레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여수 신기항 70억원, 고흥 지죽항 127억원, 장흥 우산항 164억원, 완도 당인항 147억원, 무안 홀통항 287억 원 등에 모두 795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수부는 전국 시도별 지방어항의 총량을 관리하며 신규 지정을 제한했으나 지난 2017년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남 5개소를 포함 전국 16개소에 대해 신규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방어항 5개소를 포함해 모두 93개소의 지방어항을 관리하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서·남구 이물질 수돗물 사고

1차 피해 보상 276건 6340만원

시 상수도사업본부 심의 2월초 2차 보상 접수

지난해 11월 7일 광주 서·남구 이물질 수돗물 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5일 ‘11·7 서·남구 수질사고’ 관련 1차 피해보상 심의를 했다.

피해 신고는 주민 211건, 학교 등 기관 23건, 소상공인 11건 등 모두 245건이 접수됐다. 피해 보상 접수 금액은 7415만원이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피해 신고 내용을 6개 항목으로 재분류해 276건에 대해 6340만원의 보상 결정을 내렸다.

보상 항목별로는 생수구입비 80건 419만원, 저수조 청소비 15건 2336만원, 필터교체비 170건 2527만원, 영업 보상비 11건 490만원, 세탁물 피해 등 기타 55건 1417만원 등이다. 의료비를 보상해달라는 보상 신청이 8건 접수됐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1차 피해 보상 결정에 대한 주민 동의 및 이의 접수를 받은 후 이르면 내달 초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2차 피해보상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및 올해 1월 수도요금 고지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과 별개로 요금 감면 일괄보상을 진행한 바 있다. 서·남구 주민 가운데 1만 7000세대에 대해 11월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했다. 감면 금액은 1억6200만원 규모다.

이번 수질 사고 보상은 지난 2012년 용연정수장 수질사고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정수장 약품용 공사 중 인부가 응집제 저장탱크 밸브를 건드려 응집제가 과다 투입된 사고로, 피해 보상 접수 502건을 받아 이 가운데 897건에 대해 2억8500만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7일 남구 주월·월산동, 서구 화정·염주동 일원에는 이물질이 포함된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사 결과, 백운광장 인근 공사장에서 온 공사 진동이 노후 상수도관(지름 900mm)에 전달됐고, 이 충격으로 관 내부 코팅막이 벗겨져 관을 타고 국제양광장, 풍암·금호지구 방향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관 코팅막에 포함된 발암가능물질인 ‘나프탈렌’이 일부지역 수돗물에서 미량검출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현재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